metro
메트로 2014년 1월 8일 수요일

Sports p/22

이상화도 金리허설 '퍼펙트'

이특에게 대체 무슨 일이 p/18

삼성전자 너마저! '코리아 쇼크'

4분기 영업익 예상 크게 밑도는 8조3000억 추락 '충격'
스마트폰 관련 IT부품 국내 상장사 하향 도미노 우려

2014년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 만에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의 '어닝쇼크'에 휘청했다. 외국계 증권사가 올들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8조원대 후반으로 후려치며 시장에 충격을 안긴 것이 무색하게 실제 수치는 이보다 더 낮은 8조원대 초반으로 나왔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스마트폰 관련 IT 부품 등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줄줄이 하향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을 우려한다. 가뜩이나 원고 엔저 현상이 심해지며 일본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 IT는 물론 자동차 등 국내 대표 수출주의 실적이 중진자림 질주까지 못할 우려가 높아졌다.

7일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의 스타트를 끊은 삼성전자는 시장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매출액은 59조원으로 1년 전보다 5.2% 늘었으나 영업이익이 8조3000억원으로 6.1% 줄어들었다.

8조원대 영업이익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시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국내 증권사들의 종전 예상치는 10조원 안팎의 수준이었다. 올 들어 외국계 증권사인 BNP파리바가 8조7800억원으로 전망치를 대폭 후려치고 나서야 국내 증권사들의 예상치도 9조원대로 겨우 내려왔다.

줄줄이 실적 발표를 대기 중인 주요 기업들의 상황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실적 전망치가 있는 176개 상장사 중에서 102개사(58.0%)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일 기준으로 한 달 전보다 평균 6.7% 하락했다.

정보기술(IT) 분야의 경기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면서 IT 종목 중 삼성테크윈(-24.8%), 미버(-24.7%), 삼성SDI(-24.5%), LG디스플레이(-23.9%), 삼성전기(-17.9%), LG전자(-17.0%) 등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미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내 증권사들은 삼성SDI, 삼성전기, LG전자 등에 대한 목표 주가도 속속 낮춰 잡기 시작했다.

IT와 더불어 대표 수출업종인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2661억원으로 한 달 전 2조2998억원에서 1.5% 줄어들었으며 기아차는 2.0% 감소했다. 이에 시장의 눈은 내수로 돌아갔으나 대내 상황이라고 나을지 않다. 건설업종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4조5000억원이 넘는 회사채 만기 폭탄을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4조원을 웃도는 회사채를 상환한 건설사들은 한숨 돌리기 무섭게 또다시 더 큰 상환 압박을 마주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3500억원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SK건설은 3월까지 18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하며 GS건설과 두산건설은 상반기 안으로 각각 5000억원, 2500억원을 막아야 한다. 동부건설 역시 상반기에 1100억원의 회사채를 갚아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 자금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기가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내수 중심으로 민간 경기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 경기가 바닥에서 탈출했으므로 올해 민간 영역이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출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원 엔 환율 여파로 채산성은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hjk ni@metroseoul.co.kr

'100년 유랑' 조선 불화 고국 품으로 7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J. 어 미 지박물관 기증 조선불화 기자설명회'에서 김임산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홍보담당이 한국 귀이미들의 힘으로 반환된 석가 설존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동네 사장님의 발' 다마스·라보 다시 달린다

한국GM 하반기부터 생산 재개 결정

한국GM은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연말 생산을 중단한 경상용차 다마스(Damas)와 라보(Labo)에 적용되는 일부 기준을 유예받아 차량 생산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고, 올 하반기 중 본격 생산을 재개한다.

경상용 차량의 주요 수요층인 소상공 업계의 생산 재개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및 업계 협의를 진행해온 한국GM은 주행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와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On Board Diagnostic),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를 새롭게 개발 적용해 안전과 환경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마스

한국GM은 여기에 수반되는 차량 설계 변경과 생산설비 재배치, 관련 부품협력업체 계약 등 제반 준비에 박차를 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차량 생산 판매를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상용차 중 경차 혜택을 받는 유일한 경상용 승합 및 트럭형 차량인 다마스와 라보는 지난 1991년 첫 출시 이후 저렴한 차량 가격과 유지비로 23년간 중소 상공인 및 자영업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GM 세르지오 호샤(Sergio Rocha) 사장은 "다마스와 라보에 대한 관계 부처의 관심과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관련 연구 개발을 마치고 신속히 생산을 재개해 경상용차 고객 수요에 부응하고 향후 더 높은 제품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태기자 ferrari@

'이석채 비자금' 고위 공무원에 전달 포착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미래부·산자부·안행부 등에 로비자금 활용 조사중· 부처 물갈이 도화선 주목

이석채 전 KT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정부 부처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활용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정부 사정기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중 일부가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안전행정부 등의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으로 전달된 정황을 잡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전 KT 회장의 사임 발표 훨씬 이전부터 비자금 등 비리 문제 등을 조사해 왔다. 이 전 회장의 경우 MB정부 시절 연임과 함께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 KT 회장직 유지를 위해 정치권과 공무원 사회 등에 광범위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현직 정부 부처 고위직 공무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전해진 것으로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 고위직 공무원 A씨와 안행부 공무원 B씨, 산자부 공무원 C씨 등의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정부기관의 전직 차관급 인사인 D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공직사회 '대규모 물갈이' 소문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국무총리실 1급 공무원 전원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해 '전 부처 물갈이'로 번지는 등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이 관계로 흘러들어 간 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이 도화선이 돼 일부 부처에 대한 물갈이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이 전 회장으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 공무원에 대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명품 팔아먹기 좋은 나라

기자 수첩
박지원
<생활경제부 기자>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해외 유명 브랜드들이 최근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지난해 말 프라다는 가방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평균 5% 올렸고, 샤넬은 잡화 가격을 10% 안팎으로 높였다.

환율이 떨어지고 관세가 내려갔는데도 고가의 수입 명품은 오히려 값을 올려 받으며 콧대를 높이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지나친 명품 사랑 탓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환율 하락, 관세 인하와는 별개로 명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것이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비쌀수록 더 열광하는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선진국에서 공통으로 판매되는 명품 가방류 50개 가격을 분석한 결과,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일본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비쌌다.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고전하는 명품들이 고가 전략으로 줄어든 매출액을 채우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가격을 올릴 특별한 요인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결국 터무니없이 비싼 명품을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렸다. 하루빨리 명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만큼 지불할 가치가 없으면 외면하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

강감찬함서 해적 퇴치 훈련 해군 청해부대 제15진 강감찬함 장병 300여 명은 10일 소말리아 아덴만 등에서 해적 퇴치 임무에 나선다.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이 해적 대비해 7일 경남 거제시 지세포 인근 해상에서 기동 중인 강감찬함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이산가족 상봉-금강산관광은 별개"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계하더라도 우리 정부는 분리해 대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금강산 관광과 같이 제의할 경우 별개로 분리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 사안으로 대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우리 측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제의를 하자 적십자 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함께 열자고 역제안했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북 적십자 실무접촉 답 없어

한편 전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10일 통일각에서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민준기자 mkim@

상산고도 '교학사' 철회 "외압에 의한 결정 아니다"

전주 상산고가 우편향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상산고 박삼옥 교장은 7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해 최종적으로 지학사 교과서 1종만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교장은 "외부의 강압에 의한 철회 결정은 아니다. 다만 결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채택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홈페이지 게시판을 폐쇄하고 학생 대자보를 철거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윤다혜기자

미 기계화대대 9개월간 경기북부 배치

이라크에서 철수해 미국 본토에 주둔 중인 미군 기계화대대가 경기 북부 지역에 9개월 동안 배치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군의 한 소식통은 7일 "M1A2 전차와 M2A3 전투장갑차 등으로 무장한 미군 1개 기계화대대가 9일 미국 본토에서 출발해 한반도에 임시로 배치된다"며 "순환 배치 중인 이 부대는 9개월 뒤에는 한반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력 규모는 800여 명 수준으로 일각에서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미군의 계획된 부대 순환 배치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들어오는 제23화학대대는 주한미군 2사단 1여단 소속으로 핵 생화학 정찰 및 장비 제독, 반 미 시후대응관리 지원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민준기자

설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들이 7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남촌 청과동에서 육류 제품의 원산지 표기를 단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졸업사진도 셀카로 찰칵! 7일 서울 성북구 자위중학교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기념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짝퉁 10개 중 4개 샤넬·루이비통

명동·남대문시장 등 단속

동대문·명동 등 서울 번화가에서 적발된 짝퉁 상품 10개 중 4개는 샤넬과 루이비통 브랜드를 본뜬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는 지난해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관광특구, 명동관광특구 등에서 위조 상품 단속을 벌여 총 382건, 7만2747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조 상품 제조·유통에 가담한 피의자 165명을 사법 당국에 송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도용 상표는 샤넬과 루이비통이 각각 1만4944개와 1만4906개로 가장 많았다.

구찌(4591개), 폴로(4296개), 캘빈클라인(3389개), 나이키(2232개), 돌체앤가바나(2094개), 블랙야크(1953개), 아디다스(193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품목은 의류, 양말, 장신구, 모자, 지갑, 쇼핑백, 벨트, 가방 등의 순이었다. /조현정기자

서울시가 압수한 위조 상품들 /서울시 제공

현재현 등 4명 구속영장

'동양사태' 사기·배임·횡령 혐의…구속 여부 내일 결정될듯

검찰이 7일 '동양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65) 회장과 정진석(57) 전 동양증권 사장, 김철(40)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이상화(45)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 회장은 2007~2008년께부터 사기성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지난해 고의로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1조원대 피해를, 계열사에는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금 사정이 악화돼 변제가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회사채 및 CP 발행을 기획·지시하고 그룹 지원에서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전 사장 등 3명의 경우 현 회장과 공범 혐의가 적용됐다. 일부는 개인 비리도 적발됐다.

정 전 사장은 특경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김 전 사장은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이 전 대표는 특경법상 사기 및 배임·횡령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열릴 예정이다. /윤다혜기자 yds@metroseoul.co.kr

바빠진 물류센터 설을 앞두고 7일 오전 경기도 오산 롯데마트 오산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평소 물량보다 45% 이상 늘어난 하루 25만개 박스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례용품 구매 강요땐 업무정지·과징금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들에게 특정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할 경우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특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치단체장에 신고를 마쳐야 영업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장례식장의 경우 2년 안에 기준을 충족해 신고해야 한다.

장사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이나 장례물품의 사용·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성훈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화가 장욱진 태어나다

1918년 1월 8일 예술과 술의 화가 장욱진이 충남 연기에서 태어난다. 그는 일본인 교사의 부당함을 항의하다 경성 제2고보에서 퇴학당하고 양정고보를 거쳐 도쿄제국 미술학교에서 수학했고 김환기, 유영국 등과 함께 서양화 2세대를 이루며 신사실파 동인으로 활동했다. 동화, 전설 덕분 등 단순한 소재를 단순하면서도 다감한 구성으로 그려내 화단에 독특한 세계를 담긴 화풍을 추구한 그는 도시를 떠나 덕소, 수안보, 신갈 등 자연 속의 시골로 들어가 그림과 술, 가족과 더불어 치열한 예술과 무욕의 삶을 살다 갔다.

집배원도 7월부터 토요휴무

집배원들도 7월 1일부터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지난 1일부터 원칙적으로 집배원의 토요일 휴무를 시행키로 했으나 대국민 홍보와 인력 재배치, 세부 실행방안 마련 등 준비를 위해 6월 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요일에 접수한 우편물, 농수산물 등 시급히 배달돼야 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마을만들기 사업 가속도

특별교부세 23억8000만원 확보… 올해도 프로젝트 본격 추진

부산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이 올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약속한 특별교부세 23억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원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비' 7억원이 지원돼 노인 일자리 제공과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공동체 비즈니스센터가 세워진다.

또 중구 남포동 건어물시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비 7억원이 지원돼 대형 관광버스 진출입로 확보는 물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밖에도 동구 조방동 하천 및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비 9억8000만원이 지원돼 복개 구조물 노후화로 슬래브 및 벽체 균열, 철근 노출, 콘크리트 파손 세굴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1회 지역공동체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한 후 사하구 녹음광장에서 열린 마을만들기 골마켓 및 마을기업 장터, 감천문화마을을 잇따라 방문해 부산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격려했다. /뉴시스

영진전문대학 사회봉사단이 지난해 1월 필리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습 /영진전문대학교 제공

필리핀에 나눔 전하는 영진전문대 봉사단

환경개선·한류 문화 전파

영진전문대학 사회봉사단이 해외에서 인류애를 실천한다.

7일 영진전문대학에 따르면 대학 사회봉사단은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필리핀 바탕가스(Batangas)주 쿠엔카(Cuenca)시에서 인류애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에 나선다.

박재철 봉사단장과 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대학 봉사단은 필리핀에서 보건·위생 교육과 문화 교류, 환경 개선 활동 및 친선 교류 행사를 펼친다.

이들은 지역 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담장 수리와 벽화 작업 등의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친다. 또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시범과 K-팝 공연과 한식을 선보이는 등 우리 문화를 전할 계획이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종이접기와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활동을 주민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혈압 관리 교육과 혈압 체크를 실시한다. 더불어 현지 가정 방문과 현지 대학생들과의 스포츠 교류 등 친선 교류도 가질 예정이다.

봉사활동에 나서는 윤형주(컴퓨터정보통신계열)씨는 "필리핀이 큰 재난을 입고 있어서 봉사활동이 조심스럽지만 10월 말부터 준비하며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예지(사회복지과)씨는 "치아 건강을 위한 구강 교육은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체크와 혈압 관리를 위한 생활수칙을 소개하는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우리 문화 소개와 친선 교류 활동으로 한국의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혁균기자

배나무야 잘 자라다오 7일 경남 함안군 월암마을에서 한 농민이 배나무의 생장과 병충해를 예방하는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illegible] 제공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 연수

(사)한국놀이문화협회는 오는 16일부터 '제7기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 연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연수는 공인 2급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증 연수로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3개월간 진행된다. 기존에 별개로 나뉘어져 있던 레크리에이션지도자와 웃음치료사 연수를 하나로 묶어 웃음건강박수와 마술 등 다채로운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자격증 취득 시 복지관·병원·노인대학·각종 기업체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기 발전 및 취미 활동을 위해 주부, 회사원, 교사·최고경영자(CEO) 등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수강을 신청하고 있다.

수업은 협회의 회장이자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명준 박사와 자미곤 교수 등이 지도할 예정이다. 문의 (051)441-5511 7815

남항대교 밑 무허가 포차 사라졌다

서구 25개동 모두 철거

부산 남항대교 아래 무허가 노점 포장마차가 모두 사라졌다.

부산 서구는 지난 3일 오후 암남동 남항대교 아래 무허가 노점 포장마차 25개 동을 오두 철거했다고 7일 밝혔다.

2008년부터 이곳에 들어선 포장마차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갈맷길 편가운데를 막고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데다 야간에 취객의 고성방가 등에 시달려온 인근 아파트(400세대) 주민들로부터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다.

구는 2010년부터 자진 철거를 유도했지만 장사를 할 데가 부지를 구하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상인들의 반발로 2차례 철거 시한을 연장하는 등 진통을 겪다가 이번에 오두 매결된 것이다.

구는 포장마차가 막고 있던 인도 90m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6일부터 재정비 공사에 착공했다. 예산 3000만원이 투입됐으며 한 달 후면 공사가 끝난다. /연합뉴스

막 오른 부산시장 선거

박민식 의원 후보군 첫 출사표

새누리당 박민식(47·부산 북·강서갑, 사진) 의원이 7일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의원은 부산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변화 그 이상, 1000만 부산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슬로건에 대해 "인식의 부산을 넘어 1000만 명이 살고 싶은, 1000만 명이 일하는, 그리고 1000만 명이 즐기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찍 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시장선거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시철도 고객 모니터 모집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직접 개선 의견과 아이디어를 게시하는 2014년도 고객 모니터를 오는 19일까지 역별 1명씩 100여 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9기를 모집하는 도시철도 고객모니터는 지난 8년 동안 838명의 시민이 활동하면서 총 3179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올해 고객모니터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부산도시철도 이용 시민 또는 외국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교통공사 홈페이지(www.busanmetro.busan.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척추건강 무료 운동교실

동래 우리들병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별관 척추건강운동센터에서 '우리 가족 척추건강 무료 운동교실'을 개최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자세 교정과 척추질환 예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운동교실은 청소년의 자세 교정과 키 크는 스트레칭, 요통 예방을 위한 허리 강화운동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8주간 진행된다. 강사로는 운동처방사 송문옥 실장이 나선다. 매회 10명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문의 (051)559-5180

수영구 아동센터 4곳 안심문자 알리미 시행

부산 수영구는 지역 아동센터 4곳에서도 어린이의 출석을 보호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안심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초등학교나 학원에서 널리 이용되는 알리미 서비스를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 위한 지역 아동센터로 확대한 것은 부산에서 수영구가 처음이다.

국산 벌꿀 日 첫 수출길

지역 양봉업체 현대 에이엠 20t 계약체결

부산지역 한 업체가 국내 최초로 일본에 벌꿀 수출길을 열어 이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벌꿀 및 양봉기자재 수출업체 (주)현대 에이엠(대표 김현대)으로 1월 8일 식품에 철저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 20t의 아카시꿀을 처녀 수출한다.

2012년 이상고온으로 벌꿀 생산량은 크게 늘었으나 국내 꿀 소비가 줄어 양봉업계 전체의 고민이 깊은 가운데 이번 해외 진출 소식은 양봉 농가에 새해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국내 벌꿀 생산량은 한 해 3만5000t 내외로 이 중 아카시꿀은 2만여 t 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벌꿀 소비가 줄어들고 뉴질랜드의 '마누카꿀' 같은 고가의 꿀이 한 해 8000t가량 수입돼 국내 양봉 산업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산 벌꿀의 일본 수출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수출계약은 국내 벌꿀이 일본 측에서 실시한 150여 가지 검사를 통과했고, 수입 회사 측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몇 차례 양국을 오가면서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서 성사됐다.

수출업체 김현대 대표는 "한국의 벌꿀 생산이 위생적이며 과학적으로 품질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에서 인정받으면 한국 내수 벌꿀 시장도 안정을 찾고 가격 지지효과가 클 것으로 믿고 일본 진출을 위해 1년간 노력한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김재숙 소장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벌꿀 수입이 연평균 10%정도 증가 추세인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꿀벌연구회와 부산지역 벌꿀 생산업체 등이 산적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 지속적인 농산물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busan.co.kr

호텔 숙박하고 쇼핑에 영화까지

롯데호텔부산 패키지 선봬

호텔에서 숙박만 한다는 고정관념은 버려라.

롯데호텔부산은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등과 제휴를 통한 패키지 '쇼핑의 여왕'을 오는 6월 말까지 선보인다.

이 패키지는 호텔의 여유로운 휴식과 백화점에서의 트렌디한 쇼핑, 롯데시네마에서의 영화 감상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은 것이다. 디럭스룸 1박과 롯데백화점 10만원 상품권, 롯데시네마 관람권 2장이 제공된다. 가격은 주중(일~목요일)기준 26만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을 이용할 경우 당일 10만원 이상 구매 시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2장, 20만원 이상은 롯데백화점 상품권 1만원 증정, 40만원 이상 구매 시 설수화 퍼펙팅 클렌징(200ml)이 제공된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오는 가족단위 고객들을 위한 웅진 스토리텔링 렌털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및 예약 (051)810-1100

/정하균기자

비상 걸린 겨울철 AI 바이러스

市, 상황실 가동 등 방역대책

부산시가 겨울철 AI바이러스 비상에 걸렸다.

최근 시베리아 등에서 겨울 철새가 월동을 위해 국내로 이동함에 따라 AI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서 인체 감염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H7N9형 AI가 발생하고 구랍 21일에는 고병원성AI(H5N2형)가 중국 바오딩 시에서 발생해 닭·오리 등 가금류 13만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AI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농축산유통과장을 실장으로 5개 반 22명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평일·공휴일을 막론하고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동절기 AI 방역 대책에 나서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 구·군에도 별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를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하고 가축 사육농가 등에 대해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야생조류 차단막 설치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AI바이러스(H5·H7형)가 예년보다 인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철새도래지를 방문하는 시민들은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하고 "축산 농가에서는 특별방역기간 중에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닭 농가 26곳 520건, 오리 농가 40곳 80건, 전통시장 8곳 40건, 거위 농장 등 6곳 24건,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 및 비둘기 등 총 2120건에 대해 AI바이러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뉴시스

편지봉투 모양 핸드백 7일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지하 2층의 한 가방매장을 찾은 고객들이 편지봉투 모양의 파우더니가 분리돼 클러치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핸드백을 살펴보고 있다.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4개점은 오는 10~12일 이 브랜드의 핸드백 전 상품을 50%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제공

부산시향 정기공연 관람료 24년만에 인상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정기공연 관람료가 올해 신년음악회부터 인상된다. 부산문화회관은 오는 10일 열리는 시향 정기연주 신년음악회부터 관람료를 기존 가격의 배가량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R석은 1만원에서 2만원, S석은 7천원에서 1만5000원, A석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B석(5000원)을 신설했다.

부산시향 정기연주회 관람료가 오른 것은 1990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다른 시립예술단(무용, 연극, 국악, 합창)은 기존 가격을 유지한다.

부산문화회관 한 관계자는 "공연 수준이 향상되고 물가도 많이 인상됐으나 관람료는 20년 이상 묶여있었다"며 "관람료 현실화를 위해 인상했지만 경기 등 다른 지자체 시향 관람료(R석 3만원)와 비교해 비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태석봉사상 시상식 13일

제3회 이태석봉사상 시상식이 오는 13일 오후 5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다 영면에 들어간 고 이태석 신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태석봉사상 수상자로 스페인 게르니카 출신의 유의배(루이스 마리아 우리베·69)가 선정됐다.

유신부는 파란 눈을 가진 스페인 출신으로, 1980년 성심원에 부임한 이래 33년째 한센인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다.

유 신부는 사회적 편견과 제약으로 어려운 환우들과 소외된 아이들의 부모 역할 등 3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랑을 나눠 오고 있다. 이런 그의 진정한 인류애가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라고 시업회 측은 설명했다.

market index <7일>

코스피	코스닥
1959.44 (+6.16)	504.56 (+4.24)
금리 (국고3년)	**환율** (원/달러)
2.89 (변동없음)	1058.50 (+2.50)

뉴스&뉴스

팔도특산물 최대 20% 할인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쇼핑이 7일 중앙우체국에서 2014년 우체국쇼핑 할인대잔치 홍보 행사를 열고 있다. 우체국쇼핑은 6~22일 팔도특산물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연간 4000만원 금융소득자 8% 증가해 5만6000명 집계

● 국세청은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자가 5만6000명에 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기준 국세청의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에 따르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5만5730명이며 금융소득은 10조651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보다 신고 인원은 8%, 금액은 4.3% 늘어난 수치다. /박정원기자

카드영수증 정보 유출 차단

● 금융 당국이 신용카드 영수증(매출 전표)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단말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 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 업체에 카드번호 16자리 중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김현정기자

매매가 오른 집 85% 중소형

● 최근 1년간 수도권에서 매매가가 상승한 가구의 85%가 중소형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총 347만7162가구 가운데 29만7211가구가 1년 전보다 매매가가 상승했다. 이 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25만2699가구로 85%를 차지했다. /박선옥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로구 S원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광작
편집국장	조민호
부산지사장·지대	김옥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550 2100
독자센터	(02)721 9864

2007년5월 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가-OO 7C6OO

대기업-중소기업 신입 연봉차 1127만원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입들의 연봉 차가 10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2014년 대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의 4년제대 졸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3707만원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공기업은 3096만원, 외국계 기업은 2980만원, 중소기업은 2580만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입 평균 연봉 격차가 무려 1127만원에 달한 셈이다.

대기업 중에는 조선중공업(4300만원)과 금융(4189만원) 업종의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가장 높았고, 유통(3308만원), 식음료 외식(3416만원) 업종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국헌기자 kmks@

'2.5%' 손 잘못 댔다간 경기 '풀썩'

채권전문가 99%, 1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전망
"美양적완화 축소로 리스크 여전…관망 필요 분석"

오는 9일 새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동결 대세 속에 인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2.50%로, 지난달까지 7개월째 동결 기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14년도 1월 채권시장 지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 전문가들 99% 이상이 1월 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권 전문가들은 "대내외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지난해 12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발표됐다"면서도 "국내 경기 회복에 기준금리를 조절할 만큼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주요 증권사들도 기준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KB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당국의 올해 통화정책 방향이 통화정책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여전해 대내외 여건 변화를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채권분석팀장은 "장기적으로 테이퍼링이 가져올 이슈는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책 당국이 정책 변화를 모색할 만한 시장 변동 요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팀장은 "신흥국들도 국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더 지켜보고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도 "섣부른 통화정책 조정보다는 대외 불확실성을 주시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회의 직후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최대 1년 반까지 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해 골드만삭스는 지난 6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해 금융시장이 한때 출렁거렸다.

골드만삭스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권구훈 전무는 보고서에서 "최근의 원화 절상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회의의 비둘기파(통화 확장을 선호하는 성향)적인 방향 전환을 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이날 이례적으로 10원 넘게 치솟았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2원 오른 1066.4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권 전무는 "원화 절상, 시중금리 상승, 증시 약세 등으로 한국 금융권의 상태가 너무 빨리 긴축 쪽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기 회복 추진력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문기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CES 달군 삼성전자 콘퍼런스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CES 2014' 삼성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삼성전자의 난다 라마찬드란 상무가 갤럭시 노트 프로, 갤럭시 탭 프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경제뇌관 '가계빚 1000조' 공포 현실로

최근 두달새 9조 증가 또 사상 최고치 경신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취급기관 대출만 두 달 새 9조원 불어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원 늘었다.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재작년 12월 65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월 654조4000억원까지 줄고서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5월부터는 매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말 이후 두 달 사이 대출 잔액만 9조원이 증가했다.

국내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99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예금취급기관과 함께 보험사, 연기금, 대부 사업자, 공적 금융기관 등 기타 금융기관의 대출 및 판매신용까지 포괄해 분기별로 산출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전부 정책에 의한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며 "지난해 말까지 가계신용이 당연히 100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을 유형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414조2000억원)이 한 달 전보다 2조8000억원 늘고 마이너스통장·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 대출(266조9000억원)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478조2000억원)은 3조원 늘고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02조9000억원)은 2조원 증가했다. /김현정기자 hjkim1@

반도체칩 없는 카드 내달부터 인출 중지

다음달부터 반도체칩(IC칩)이 내장되지 않은 MS(Magnetic Stripe)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 이달 중 IC(Integrated Circuit)카드로 교체하지 않으면 현금 인출을 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MS카드를 이용한 현금입출금기(ATM)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고 7일 밝혔다.

즉시 교체 대상 카드는 현금 인출 기능이 부가된 모든 MS카드로 MS현금카드, MS신용카드, MS체크(직불)카드 등이다. 이들 MS카드를 통한 구매, 거래, 현금서비스·카드론 거래 등도 2015년 1월부터 전면 중단된다.

지난해 말 현재 교체 대상 카드는 67만 장이며 하루 평균 약 1만3000여 장이 사용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004년 이후 카드 불법 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현금카드 중에서 마그네틱 띠만 부착돼 복제가 쉬운 MS카드를 반도체칩이 내장돼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왔다. /김현정기자

NCSI
6년연속 소주부문
국가고객만족도 1위
HAPPY SHAKE!
올 겨울이 처음처럼 부드러워집니다
흔들어 마시는
물이 좋은 소주
처음처럼
HAPPY WATER
100%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구글 안드로이드카' 현대차도 탑승한다

아우디·GM·혼다 등 4사 '달리는 스마트폰' 개발 손잡아

구글이 현대차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4사와 손잡고 일명 '안드로이드카'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 아우디, GM, 혼다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해 음성과 터치 조작으로 차를 스마트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구글은 이를 위해 이들 업체와 IT기술 개발을 추진할 단체를 만들어 안드로이드카 제작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7일 구글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쉽게 말해 '달리는 스마트폰'이다. 즉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뒤 음성으로 목적지 설정, e메일, 주식 정보, 날씨 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방 충돌 위험 감지, 안전 주차 등 운전과 관련된 첨단 기능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시동을 켜면 자동차 컴퓨터가 "목적지 설정"이라고 묻으면 운전자가 "회사"라고 답하고 곧바로 "30분 소요 예정, 접촉 사고 지리로 5분 정도 추가 소요 가능성" 등을 알려준다.

또 "김 과장에게 e메일을 보내줘"라고 말하면 자동차가 알아서 전송을 해줄 수 있다.

원격 시동, 실내온도 조절,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제거와 같은 일도 음성, 터치와 함께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구글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한 업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요리", "빌보드 차트 1위"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구글의 검색 횟수 등을 반영한 결과를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이를 처방하도록 돕는다.

같은 날 현대차는 미국 가전전시회(CES)에서 안드로이드를 활용한 블루링크 텔레매틱스 플랫폼을 공개했다. 2015년형 제네시스에 이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티브로드 '사용자 인터페이스' 업그레이드 케이블 방송사 티브로드는 7일 수원방송을 시작으로 1월까지 지역별로 디지털 HD 방송가이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스피드 서비스 기능 추가 ▲주문형비디오(VOD) 관련 기능 개선 ▲사용자 개인 정보 변경 기능 ▲고객의 소리(VOC)를 반영한 기능 개선 등 4가지 분야으로 개편됐다. /티브로드 제공

스마트폰 악성앱, 홈피로도 침투 조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유포되던 모바일 악성앱이 최근 일반 홈페이지에서도 발견됐다며 모바일 기기에서 홈페이지 접속 시 앱 다운로드 안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견된 모바일 악성 앱은 이용자들이 평소에 정상적으로 방문하던 홈페이지 해킹을 통해 유포됐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를 타깃으로 한 점이 특징이다.

해당 웹사이트를 PC에서 접속하면 정상적으로 홈페이지가 열리지만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 '스마트폰 필수 보안업데이트'라는 문구로 악성 앱 다운로드를 유도했다. OK 버튼 클릭 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연결되지 않고 자동으로 악성 앱이 다운로드된다.

/이재영기자

이승기·김연아 1년 더 'KB금융의 얼굴' 맡는다

KB금융그룹이 최근 이승기, 김연아(사진 왼쪽부터)의 모델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이승기와 김연아는 2014년에도 KB금융그룹의 대표 모델로 활약하게 된다.

이로써 이승기군은 2009년 KB금융그룹 광고모델을 시작으로 6년째, 김연아 선수는 고등학생이었던 2006년부터 시작해 9년째 KB금융의 한 가족으로서 인연을 이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동일 광고모델을 장기간 운용하는 전략에 대해 금융의 기본 원칙인 안정과 신뢰의 이미지에 크게 기여하는 성공 사례로 분석한다. 실제로 최근 한국대학신문이 조사 발표한 대학생이 가장 신뢰하는 금융브랜드에 KB금융그룹이 1위에 올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전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확고한 의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김민지기자

국공립 유치원 품은 아파트

마포 래미안 웰스트림 등 단지내 유치 활발
입주민 '꿈의 보육시설' 입학 쉬워 집값 호재

단지 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활용한 건설사들의 마케팅이 활발하다. 어린이집의 부실 운영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마음을 자극하겠다는 계산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을 유치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등으로 자녀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는 많은 데 반해 이들 시설의 입학 기준은 까다롭다는 데서 착안한 선택이다.

현재 지자체마다 비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기부채납해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우선 입학할 수 있는 키를 주고 있다.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수요자라면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는 아파트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성사동에 있는 '래미안 휴레스트'의 경우 당초 키즈카페로 사용하려던 1층짜리 건물을 정원의 50%를 입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했다. 그 결과 배당 어린이집에 등원을 원하는 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맞은편 아파트보다 2000만~3000만원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공급된 '래미안 웰스트림'도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단지와 인접한 골프연습장 부지를 140억원에 매입, 연면적 1580㎡ 규모에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석어린이집'을 마포구에 기부채납키로 했다.

삼성물산은 또 서울 신길동 신길뉴타운 11구역에 분양 중인 '래미안 영등포 프레비뉴' 안에도 구립 어린이집과 구립 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서 공급한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 내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집과 130명까지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다. 국공립은 아니지만 최초 아동복지학부로 유명한 숙명여대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속을 추구하는 학부모들이 자녀를 손쉽게 등원시킬 수 있고 치열한 입학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며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 거래가 활발하고 가격 하락 우려도 적어 실거주를 원하는 학부모라면 관심 가져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선영기자 psy0920@metroseoul.co.kr

왕십리 스트리트형 상가 분양

뉴타운 2구역 알짜 상권
7000가구 고정수요 예상

서울 중심지 왕십리뉴타운의 사업 속도로 내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2011년 가장 먼저 분양돼 시범단지에 해당하는 왕십리뉴타운2구역에서 단지 내 상가를 공급한다. 약 280m 스트리트형 상가로 구성된다.

스트리트형 상가는 다양한 업종 구성은 물론 동선을 따라 배치된 상가들이 한눈에 들어와 상권 형성에 유리하다.

특히 왕십리뉴타운2구역 상가는 총 5000여 가구 규모에 이르는 왕십리뉴타운 배후 수요를 확보해 눈길을 끈다. 인근 아파트 입주민까지 포함하면 고정 수요만 7000여 가구에 이른다.

교통도 편리하다. 1·2호선 신설동역, 2·6호선 신당역, 2호선 상왕십리역의 트리플 역세권 중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수도권 마지막 황금 노선인 신분당선과도 인접해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GS건설·현대산업개발·대림산업·삼성물산이 공동 시공하며 입주 시기는 2014년 2월이다. 분양 문의 (02)3395-0700.

/이선영기자

이만한 지식산업센터 드물지!

가양 '강서한강 자이타워'

GS건설이 서울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서 랜드마크 지식산업센터 '강서한강 자이타워'를 공급한다.

지식산업센터는 그동안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올 상반기부터 임대제한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임대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서한강 자이타워는 최첨단 기업도시로 조성 중인 마곡지구와 인접한 데다, 지하철 9호선 가양역과 양천향교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했다.

분양가는 주변보다 저렴한 3.3㎡당 600만원대로 책정됐다. 인근 영등포, 가산디지털단지 등에서 분양된 지식산업센터들은 700만~900만원대 수준에 나, 또 보통 지식산업센터 전용률이 51~52%인 데 반해 강서한강 자이타워는 56%(B동 기준)로 높다.

최초 분양받아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75%까지 면제되고 지방세(재산세 및 토지세)는 50%까지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금액의 약 70%까지 대출 가능하다. 가양동 현장에 분양홍보관이 운영 중이며, 계약 즉시 입주 가능하다. 문의 (02)3665-0500.

/이선영기자

아이도 어르신도 "올레가 딱이에요" KT가 청소년과 고연령층 고객을 위한 전용 요금제 혜택을 강화하고, 스마트폰에 유용한 앱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올레 시니어앱모음'과 '올레키즈앱모음' 위젯 2종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KT 제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까지 허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용적률과 녹지율 등의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서는 주민들이 정비 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계획 또는 기본 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규정은 주거지역에만 적용되며 상업지역 등은 제외된다. 또 주민 혼란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해서만 이런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 정책상 필요한 곳은 시·도지사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복합 입주가 허용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인 2.5~6.5%까지 완화된다. 용적률도 용도지역을 변경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뛰어넘어 법상 최대 한도까지 확대된다.

/박선옥기자 psw920@

읽을거리·볼거리 풍성해지는 전자책

e-북 출간 2년새 6.5배↑… 종이책과 동시출판도 늘어

국내 도서 시장에서 전자책(eBook)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꾸준하게 출간이 증가하면서 종이책과 전자책의 동시 출간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온라인 서점 인터파크도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3년간 출간된 전자책 발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2011년과 비교해 전자책 출간 종수가 6.5배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회사가 전자책 발간 현황을 본격적으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의 경우 전자책은 총 6412종이 출간됐다. 이후 2012년 1만7094종으로 전년보다 203.2%가 늘었다. 2013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320.1%가 증가한 5만4811종이 출간되는 등 전자책 출간 종수가 전년도 대비 매년 2~3배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단행본(종이책)이 전자책으로 동시에 출간되는 비중도 덩달아 늘어 2011년 14.1%였던 것이 2013년에는 17.1%로 3%포인트 증가했다.

인터파크도서 eBook사업팀 김정환 MD는 "2012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비롯한 그레이 시리즈 6권이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 출간하고 크게 히트한 사례를 남긴 뒤 전자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던 출판 관계자들도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며 "인기 작가들의 신작을 중심으로 종이책과 전자책 출간 간격이 크게 줄어들고 동시 출간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조정래 작가의 '정글만리' 시리즈도 종이책과 전자책이 함께 출간돼 순항 중이다. 이 시리즈의 종이책 출간은 지난해 7월 15일에, 전자책 출간은 같은 해 9월 13일에 있었다. 또 최근 방한해 화제가 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는 지난해 10월 23일 종이책과 전자책이 동시 출간돼 한 달 내내 양 분야 모두에서 베스트셀러 자리를 잡기도 했다.

전자책 콘텐츠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 움직임에 따라 업계에서는 전자책 사용자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인터파크도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illegible]요일 오전 10시 전문가가 엄선한 전자책 한 권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주의 무료 책' 서비스를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정영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달콤한 '1000원의 유혹'

외식업계 핫음료·후렌치 후라이 등 프로모션

얼어붙은 소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해 새해를 맞은 각 업계가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외식업계에서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푸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진행 중인 '1000원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1000원 프로모션'은 소비자들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된 가격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맛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KFC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겨울 시즌 프로모션으로 지난 2일부터 핫음료 4종을 1000원에 제공하는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겨울철 KFC 대표 스낵 메뉴들과 함께 고객들이 많이 찾는 커피, 카페라떼, 카페모카, 핫초코를 1000원이라는 가격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버거킹도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다섯 번째 와우 시리즈를 선보였다. 은하수커피와 아메리카노로 구성된 커피 2종과 킹핫도그·칠리킹핫도그·바베큐치즈워퍼·치즈칠리워퍼로 구성된 스낵 메뉴 4종을 모두 1000원대에 판매한다.

맥도날드는 후렌치 후라이·탄산음료·아이스커피 및 프리미엄 로스트 커피를 1000원에 제공하는 '행복의 나라' 메뉴를 판매 중이다. 이외에도 불고기버거, 맥치킨, 맥너겟 등의 인기 메뉴 5가지는 2000원 이하로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1000원에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는 것 외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1000원을 더하면 기존보다 풍성한 메뉴를 제공하는 행사도 활발하다.

미스터피자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맘마미아' 피자를 주문하는 고객들에 샐러드바(2인)와 음료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직접 매장을 찾은 고객뿐만 아니라 배달 및 포장 고객도 샐러드볼과 콜라를 단돈 1000원에 즐길 수 있다. 새로 나온 메뉴를 맛보는 동시에 샐러드바를 실속 있게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illegible]기자

보습제품으로 겨울 피부 지켜요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은 6일 겨울철 건조한 피부 보습을 위한 제품으로 태국 럭셔리 스파 브랜드 '판퓨리(Panpuri)'의 보디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천연 에센셜 오일을 주원료로 해 자극이 없고 보습이 풍부한 오가닉 제품인 것이 특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장미 향과 유칼립투스 성분이 첨유된 '슬리핑드 보디클렌저'가 있다. 가격은 3만3000원이다. /현대백화점 제공

주류업계 소식

일품진로 스페셜 에디션

● 하이트진로가 새해를 '2014년 일품진로 새해 기념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일품(一品)'[illegible]이 더해진 이 상품은 10년 목통 숙성의 일품진로 2병과 세련된 전용잔 2개가 함께 포장돼 있다. 100% 순쌀 증류 원액을 목통에 숙성시킨 프리미엄 소주의 특별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실크빛의 골드 색상으로 마무리해 고급감을 더했다. 출고가 기준 2만3000원.

책임 음주 문화 캠페인

● 하이네켄은 [illegible] 유명한 DJ '아민 반 뷰렌'과 손잡고 클럽 혹은 파티에서 춤과 술을 즐기는 젊은 성인 소비자를 위한 책임 음주 문화 캠페인 '댄스 모어 드링크 슬로우'를 펼친다고 밝혔다. 전세계 2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젊은 소비자들이 클럽 혹은 파티 문화를 즐기면서 음주를 스스로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계 바텐더 대회 개막

● 디아지오코리아는 7일 서울 강남 소재 조니워커하우스 서울에서 세계 최고의 바텐더 대회 '월드클래스 2014'의 개막을 알렸다. 이 행사는 전 세계 50개국의 1만여 명의 바텐더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텐더 대회다. 바텐더의 지식, 기술, 창의력, 서비스 정신 등 바텐더로서 갖춰야 할 모든 항목을 총망라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유일한 대회로 국내외 트렌디한 칵테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정영일기자

6일(현지시간) 미국 동부와 중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얼굴이 꽁꽁 얼어붙었다 /AP 연합뉴스

북미 '살인 한파'…"영하 60도도 가능"

북미에는 눈폭풍이 몰아치고 남미에는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등 지구촌이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미국 중부와 캐나다 대부분의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지면서 수은주가 뚝 떨어졌다. 미국 미네소타주 크레인레이크 지역은 6일(현지시간) 최저기온이 영하 37.8도였다. 시카고 지역도 이날 기온이 영하 27.8도까지 떨어지면서 25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로 기록됐다.

앞서 미 국립기상청(NWS)은 "7일까지 미 중서부·동부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5분 이상 피부가 노출되면 동상을 입을 정도"라고 경고했다.

◆남미는 100년 만의 '찜통더위'

남미 대륙은 100년 만에 찾아온 찜통더위로 허덕이고 있다. 아르헨티나 북부의 산티아고델에스테로주는 6일 1906년 이래 가장 높은 50도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일사병 증세로 치료를 받는 주민이 수백 명에 달했고 10여 명은 사망했다.

비교적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유럽은 '물폭탄'이 걱정이다. 스웨덴은 6일 강수량이 늘어 호수 수위가 최대 1m까지 높아졌다며 홍수 1급 주의보를 내렸다. /조선미기자

'여성 경제대통령 시대' 열렸다

옐런 미 연준 의장 인준안 상원 통과… 다음달 1일 공식임기 시작

미국에서 '여성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을 '경제 대통령'으로 맞았고, 해군은 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4성 제독을 수장으로 '바다 대통령' 시대를 준비한다.

미 상원은 6일(현지시간) 재닛 옐런(67·사진) 연준 차기 의장 지명자의 인준안을 찬성 56표, 반대 26표로 가결 처리했다.

옐런은 이달 말 퇴임하는 벤 버냉키 의장의 뒤를 이어 다음달 1일부터 4년간 연준을 이끈다. 연준 사상 첫 여성 의장인 옐런은 1979년 취임한 폴 볼커 전 의장 이후 처음으로 부의장이 의장으로 승진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연준 의장은 세계경제를 뒤흔들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옐런은 버냉키와 함께 양적완화(QE) 조치로 대변되는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이에 따라 연준의 현행 금융 통화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달 월 850억 달러 규모인 채권 매입액을 750억 달러로 줄이는 테이퍼링 착수를 결정한 바 있다. 미국의 경기가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 미 해군 첫 흑인 여성 4성제독 탄생

미 해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4성 제독이 나온다.

해군 기관지 네이비 타임스 등은 미셸 하워드(53) 중장이 조만간 단행될 해군 장교 인사에서 첫 여성 4성 제독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전했다.

해군 본부 작전 기획 전략 담당 참모차장인 하워드는 육군의 앤 던우디 전 군수사령관과 재닛 울펜바거 공군 군수사령관에 이어 세 번째 여성 4성 장성이다. 흑인 여성으로서는 전군을 통틀어 처음이다.

1982년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하워드는 31년간 해상과 육상 근무에서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왔다. 특히 항공모함 근무를 자청하는 등 전투적인 모습으로 해군 내 여성 보직에 대한 오랜 편견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日 53% "아베 야스쿠니 참배 부정적"

일본인 2명 중 1명은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과 후지뉴스네트워크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가치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38%, '가치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3%였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가치 없다'고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61.9%는 '외교적 배려가 부족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반면 '가치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의 74%는 '전쟁 희생자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했다'며 신사 참배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행에 대해 일본인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지만 30대와 20대의 경우 '가치 있다'는 응답이 50.6%와 43.2%로 '가치 없다'는 응답(30대 41.4%, 20대 41.6%)보다 많아 젊은 세대의 '우경화'를 보여줬다. /조선미기자

밀수 상아 조각품 6t 폐기 6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둥관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상아 폐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날 밀수업자로부터 압수한 6t가량의 상아와 상아 조각품 등을 폐기 처분했다. /AP 뉴시스

metro HongKong

웨이보 약속 지키려 개와 함께 엉금엉금

최근 중국에서 중년 남성이 장갑을 낀 채 잔디밭을 기어다니는 동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항저우(杭州)사범대학 법학과의 판중신(范忠信) 교수.

그는 1년 전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 "2013년 안에 민족·자치구 외 다른 모든 성(省)·시(市)정부에서 공무원 재산 공개를 실시할 것이다. 내 예언이 틀리면 발로 1km를 기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 글은 추천 수가 1만 건이 넘으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다. 새해가 다가오자 기억력 좋은 네티즌들이 이 글을 다시 꺼내며 판 교수를 조롱했다.

이에 판 교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일 공터에서 기어다니는 자신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 그는 기어다닌 후에 손바닥과 무릎에서 피가 났다고 밝혔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판 교수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판 교수는 처음 약속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봤다. 18대 이후 중앙정부는 반부패 문제를 매우 강조하며 많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 '내기'를 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재산 공개제도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리=조선미기자

스무디킹 '모닝 자몽티' 정오까지 41% 할인 7일 스무디킹이 서울 중구 스무디킹 명동스타점 앞에서 '모닝 자몽티'를 선보이고 있다. 스무디킹은 매일 정심 12시부터 자몽티를 41% 할인된 2900원에 판매하는 '굿모닝 자몽티'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무디킹 제공

황금돼지띠 초딩 뭘 멜까

출생률 급증했던 2007년생 입학 앞두고 책가방 시장 특수 기대감

2014년 새 학기를 앞두고 업체들이 책가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판매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출생률이 급증한 2007년에 태어난 '황금돼지띠' 어린이들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함에 따라 업체들은 다양한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예년보다 입학특수 규모 클 전망

황금 돼지의 해에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된다'는 속설 덕분에 당시 출산은 크게 늘었다. 실제로 2007년 총 출생아 수는 49만7000명으로, 2006년(45만2000명)보다 4만5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입학특수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에버랜드의 빈폴키즈는 황금돼지띠 이슈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물량을 약 10% 정도 늘렸다. 빈폴키즈의 책가방은 지난 2004년 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매년 25% 이상의 신장률을 보이며 지난해에는 '완판'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가능성과 디자인을 두루 갖춘 실용적인 책가방을 선보였다. 클래식한 스타일에 무게를 600g대로 줄여 어깨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었으며, 가격대도 13만9000~15만5000원으로 다양화했다.

휠라는 '친환경'과 '3D 입체 디자인'을 강조하고 나섰다. 남아용 '트랜스포머'와 'F1 포뮬러 73' 시리즈는 영화 트랜스포머스 브라이언의 모습과 경주용 포뮬러 자동차를 3D 디자인으로 입체감 있게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여아용 '팝 앤 아이라인'은 사랑스러운 프린트 패턴으로 따사한 느낌을 부각시켰다. 전 제품이 친환경 인증 'EQ(Eco-Quality) 마크'를 획득해 안심하고 착용할 수 있으며, 가격대는 6만9000~13만5000원 선이다.

코오롱FnC의 헤드 역시 러너브디 생산 물량을 20% 늘리고 안정성 편리함 스타일 등 삼박자를 고루 갖춘 기방 3종을 내놨다. 어린이들의 신체 사이즈를 고려해 U자 어깨끈+등판 쿠션 등을 적용했으며 무독성 검사에서 KC 인증을 받았다. 안감에 항균 코팅을 해 위생도 기위한 요소도 늘렸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 사랑이 남다른 부모들 덕에 프리미엄 키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황금돼지띠 어린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는 만큼 책가방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한개 값으로 두개…살맛나네

유통업계 '덤' 마케팅 풍성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유통업계에 '덤 마케팅' 바람이 거세다. 화장품 브랜드는 물론 생활가전 업체까지 하나를 사면 한 개를 공짜로 주는 '1+1' 행사를 벌이고 있다.

보습 브랜드 더마겐은 '촉촉 피부 기원 1+1 대축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17일까지 더마겐 홈페이지에서 보습크림 또는 수분로션을 구입하면 동일한 정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행사다. 피부 무자극 인증을 받은 더마겐 제품은 스테로이드·인공색소·파라벤 등 유해 물질을 인점 넣지 않아 남녀노소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생활가전 기업 리홈쿠첸은 리홈쿠첸숍에서 '홍삼중탕기'를 구입하면 내솥을 하나 더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홍삼 중탕기 내솥은 사수정유 활용해 홍삼의 면역증강력 효과를 높여주는 등 인체에 이로운 게르마늄 원적외선을 방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내솥은 7일부터 선착순 100대 한정으로 제공된다. /박지원기자

한국 와인시장 맛보러 온 英 와인 마스터

테스코 그룹의 로라 주얼 홈플러스 초청으로 방문

세계적인 유통회사 테스코 그룹의 와인 소싱(sourcing)을 책임지고 있는 마스터 오브 와인(Master of Wine) 로라 주얼(Laura Jewell·50·사진)이 14일 홈플러스의 초청으로 한국 와인 시장의 소비자들을 만나기 위해 첫 방한한다.

그녀는 연간 4억4000만 병에 달하는 테스코의 와인 글로벌 소싱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 영국 IMW(Institute of Master of Wine)에서 부여하는 전 세계에 312명밖에 되지 않는 마스터 오브 와인의 자격으로 2010년부터 테스코에 합류해 자금까지 그룹의 와인을 책임지고 있다.

테스코 그룹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성장 잠재력 평가는 아주 높다. 매년 아시아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테스코 그룹의 아시아 와인 콘퍼런스에서 테스코 영국 본사의 BWS(Beer, Wine & Spirits) 카테고리 디렉터 댄 자고(Dan Jago)는 "아시아 시장의 특수성과 고객 성향, 소비 패턴 등을 고려해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4개 국가의 와인 소싱을 진행하는 글로벌 와인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홈플러스는 '테스코 와이니스트 리스트'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영국 테스코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새로운 와인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정윤석기자

K2는 골프의류·블랙야크는 스키의류…

아웃도어업계 새사업 붐

매년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아웃도어 업계가 새로운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아웃도어 업체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포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새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2코리아는 올 9월 골프 의류 브랜드 '와이드 앵글(W. Angle)'을 론칭하고 골프 의류 시장에 뛰어든다. K2의 기술력에 북유럽 스타일을 접목한 와이드 앵글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골프 의류와 소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블랙야크는 지난해 11월부터 스위스 스키 의류 브랜드인 '마운틴 포스'를 국내에 수입, 판매하며 스키복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스페이스를 전개하는 영원무역은 지난해 산악자전거, 모터사이클 등을 선보이는 스위스 업체 스캇 스포츠의 지분 20%를 인수한 바 있다. /박지원기자

하나투어리스트
하나 Free
자유여행을 가장 저렴하게 예약하는 방법?
자유여행만들기 `항공+호텔
마케팅팀장
"고객들에게 최저가를 제대로 홍보하라! 최저가 아니면 300%를 보상한다"
호텔팀장
"고객이 원하는 호텔은 어떤 호텔이든, 믿을 수 있는 최저가격에 제공하라~"
최저가 300% 보상제실시
항공팀장
"최고의 항공과 최저가격을 찾아라!"
MISSION
3인에게 주어진 지상최대의 미션,
자유여행 최저가를 확보하라!
기간 : 2013년 11월 11일~2014년 2월 28일
자유여행 어디서 예약 할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다구요?
하나 Free 〈자유여행만들기〉
항공 + 호텔에서
❶ 손쉽게 한 번 검색으로
❷ 항공과 호텔에 현지투어, 패스, 입장권까지 한꺼번에!
❸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하세요!
최저가 보상제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가격을 비교하여 차액발생시, 차액의 300%마일리지보상
최저가 가격비교 방법
하나투어 '항공+호텔'의 자유여행만들기로 항공과 호텔을 통한구매한 가격과 타사의 동일조건 상품 구매시 차액확인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1566-0223
www.hanatourist.com

엠피리얼 팰리스 서울에서는 석남주 작가의 작품 '로그인을 할수록 (More Log-in Less Losing)'을 만날 수 있다

미술관이야 호텔이야?

특급호텔들 숙박·미식 서비스 넘어 전시 이벤트로 감성 서비스

단순한 숙박시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특급 호텔들이 늘고 있다. 감성을 자극하는 호텔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소개한다.

◆신진 작가전 여는 엠배서더

먼저 그랜드 엠배서더 서울은 역량 있는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 전시를 후원하는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는 예술이 우리 삶에 부여하는 특별한 가치를 호텔 방문객과 함께 공유하고 신진 작가들에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호텔은 지난달부터 손자영 작가의 '모노그램 프로젝트' 작품 전시전을 진행하고 있다.

호텔은 앞으로도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시리즈로 선보여 호텔의 공간을 문화 체험 장소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예술콕 기획한 임피리얼 팰리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고객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호텔 내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호텔 곳곳에 예술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도어즈 아트 카페' 등의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영화로도 제작되며 많은 화제가 됐던 타이타닉호를 완벽하게 재현한 예술 작품도 로비에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고 호텔 1층에 위치한 갤러리 포월스(Gallery 4Walls) 역시 고객들에게 또 다른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노보텔 강남서도 개성있는 전시

노보텔 엠배서더 강남은 이의라운지에서 "노보텔 강남, 예술을 만나다" 첫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의 문화 이벤트인 '아트 앳 노보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은 클레이 작가 기윤주의 작품과 한국 전통의 미와 나무 본연의 결을 잘 살린 작품으로 유명한 목공예 작가 동영예회 작품 등 총 5명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전시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되며 호텔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한병 2800만원 … 작품이 된 위스키 에드링턴 코리아는 싱글몰트 위스키 맥캘란과 프랑스의 크리스털 공예 명가 라리끄가 공동으로 만든 한정판 위스키 '맥캘란 라리끄 5' 스지리튜얼 홈 에디션'을 시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제품은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으로, 전 세계 400병 한정 생산됐으며 한국에는 단 10병만 판매된다. 62년 숙성된 위스키 원액을 담았으며 가격은 2800만원이다. /에드링턴 코리아 제공

제주항공 "올해 매출 목표 5300억"

제주항공이 지난 6일 2014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제주항공은 선도적 저비용항공사(LCC)로서 비즈니스 모델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차별적 경쟁 우위 확보를 2014년 전략 목표로 수립했다. 또 매출 목표액은 전년 대비 1000억원 늘어난 5300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제주항공은 ▲원칙과 절차 준수를 통한 안전 강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 절감 ▲매출 다변화를 위한 부가수익 창출 ▲고객 만족도 향상과 브랜드 강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의 핵심 과제를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항공사와의 간격을 줄이는 한편 후발 주자와의 격차도 벌려나갈 계획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매출 다변화를 위해 2012년 국내 LCC 중 가장 먼저 시작한 소규모 화물 사업 서비스를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로 발굴할 방침이며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신규 취항과 기존 노선의 증편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규남 제주항공 사장은 "올해는 외부의 다양한 위협 요인에 대비하면서 국내 항공시장의 선도적 LCC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차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바다열차' 업그레이드 출발

코레일관광개발의 '바다열차'가 새 단장을 마치고 귀환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지난 4일부터 강릉~삼척 구간을 운행하는 바다열차를 증량해 재운행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기존 3량 114석에서 4량의 163석으로 열차를 증량했으며 특실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프러포즈실도 마련했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3호 칸에는 가족과 마주보며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24석의 가족석과 각종 이벤트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25석의 이벤트석이 운영되며 스낵바에서는 열차 내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까지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단체 여행에 알맞은 4호 칸에는 생생한 바다의 모습이 재현된 포토존이 자리했으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역시 바다 여행의 멋을 살리는 콘셉트로 꾸며졌다.

이건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바다열차가 업그레이드된 디자인과 콘텐츠로 새롭게 출발한다. 앞으로도 열차가 국내를 넘어 한류관광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처음 출발한 바다열차는 지난해 8월까지 70만명 이상이 이용한 바 있다.

격 올린 이코노미석 더 넓게 더 맛있게

신개념 '프리미엄 일반석' 외국항공사들 잇단 도입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똑똑한 소비가 늘고 있다. 이는 항공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신개념 좌석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가 바로 그것이다.

영국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 '월드 트래블러 플러스'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코노미 좌석보다 넓은 18.5인치의 좌석에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앞 좌석과의 간격도 약 18㎝나 떨어져 있다. 또 수하물은 23kg 2개까지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며 비즈니스 클래스와 동일한 프리미엄 기내식을 비롯 내내 맛볼 수 있다. 게다가 김치와 라면 메뉴까지도 제공된다.

에어프랑스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은 이코노미에 비해 40% 정도 더 공간이 넓고 좌석이 칸막이로 분리돼 있어 프라이버시가 지켜진다. 또 비즈니스 클래스와 동일한 트래블 키트 제공 및 전용 체크인 카운터 이용, 우선 탑승, 수하물 추가 적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의 장거리 노선 항공기에는 프리미엄 일반석이 탑재돼 있다. 일반석보다 좌석이 넓고 등받이를 최대 20㎝까지 눕힐 수 있으며 식사 테이블 외에 칵테일 테이블이 추가로 마련돼 있다. /황재용기자

한국인 해외여행객 20% "상품 강매 사기 경험"

한국인 해외여행객 5명 중 1명이 해외여행 중 여행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가격 비교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는 최근 5년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한국인 여행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기 피해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2%가 해외여행 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유형은 공짜라고 속인 뒤 상품을 사용하게 한 뒤 상품 가격을 청구하는 '공짜 미끼 강매'다.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여행자의 26.4%가 공짜 미끼 강매를 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유럽 여행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또 수리하게 낯선 팁 문화도 자주 당하는 사기 유형이다. 사기 피해 경험이 있는 여행자 중 24.3%가 레스토랑, 카페, 관광지 등에서 일반적인 팁보다 훨씬 많은 팁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행자 동의 없이 계산서에 팁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명품 짝퉁 사기를 당하는 여행자도 21.63%에 달했다. /황재용기자

DRAMAcube
칼을 품은 한 남자의 초고속 승진×복수 드라마
당하면 갚아준다!
두배로!!
드라마큐브가 선사하는 2014년 첫번째 프리미엄 드라마!
한자와 나오키
더빙판 | 매주 수~목 밤 10시 · 자막판 | 매주 금~토 밤 12시
일본을 무릎꿇린 42.2% 경이적인 시청률 기록!
디지털 케이블 TV | 티브로드 71번 CJ헬로비전 45번(HD) 219번(SD) 씨앤앰 44번(HD) 206번(SD) HCN 43번 IPTV | Btv 79번 Olleh tv 74번

3주 버티면 나쁜 습관과 작별

자기계발 작심평생 실천 비법

습관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생체리듬까지 교정돼 평생 정착
일기쓰듯 생활 체크해도 큰변화

"올해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의 뻐저린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마다 이맘때면 지난해 연말 야심차게 세웠던 계획들이 이미 기억 너머로 사라진 사람들도 많다. 작심삼일 이란 사자성어를 덧하면서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작심평생'을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본다.

◆ **21일 약속 을 지켜라**—지난 연말에 세운 계획을 지키기 힘든 점에 게 발생했더라도 일단 21일까지는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성공을 몸에 익히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좋은 습관을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뇌에 시냅스(신경 간의 연결)가 형성돼 생체리듬까지 교정돼 평생 습관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나만의 긍정 주문을 만들어라**—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때 슬기롭게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긍정주문 하나쯤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는 최고의 자리가다', '올해 판매왕은 내 차지다' 등 성공을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주문이 효과적이다.

◆ **성공을 정의하라**—성공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생각하는 성공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때 직업적,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가치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눈 뒤 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글이나 이미지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혹시 이미지도 힘들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에 대해 스스로 물어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 **매일 평가하라**—평가와 피드백이 없으면 목표 달성률이 40% 아래로 떨어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일기를 쓰면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좀 바쁘다면 다이어리 등에 그날 목표와 달성 여부를 표시해 나태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

◆ **멘토와 함께하라**—계획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줄 멘토가 있다면 실천 의지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상사나 동료 혹은 가족 중에서 멘토를 선정해도 된다. 필요에 따라 서로 상대방의 멘토가 돼 격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 **일주일 중 하루는 자신에게 보상하라**—최고의 동기부여는 '보상'이다. 성공을 위해 열심히 매진한 스스로에게도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면 계획을 달성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예를 들어 게임 마니아라면 일주일에 하루쯤은 퇴근 후 맘껏 게임을 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새내기 승무원의 미소 아시아나항공의 신입 캐빈승무원들이 7일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A380 모형 비행기 앞에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공모전의 계절

SK플래닛·LG·현대모비스 등 연초 대학생 대상 행사 봇물

신년을 맞아 대학생들이 관심을 둘 만한 공모전이 쏟아지고 있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에쓰오일(S-Oil)은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www.s-oilbonus.com)를 통해 마케팅 공모전을 연다. 응모 자격은 국내 거주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며 1인 단독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IMC캠페인, 보너스카드 의 2개다. 대상, 최우수상 수상자가 입사를 지원할 경우 우대한다.

SK플래닛도 19일까지 '대학생 체험 리포터 플래티 2기 모집 및 공모전'을 진행한다. 응모 자격은 서울·수도권 4년제 대학생이며 사진, 디자인 등 편집 능력 보유자는 우대한다. 모집 부문은 영상과 디자인 부문, 기획과 홍보 부문이다. 수상한 6팀에게는 총 690만원의 상금과 입사 지원 시 가산점을 준다. e메일(skplanetreporter@nate.com)로 지원할 수 있다.

LG 역시 '럽지리젠 20기 학생기자'를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2014년도 기준 대학 재학생이다. 응모 분야는 동영상기자와 취재기자로 총 10명을 모집한다. 활동 시 멤버십과 공식 활동 인증서를 발급하며 취재 진행비, 해외 취재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19일까지 홈페이지(www.lovesen.co.kr)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논문·논술 공모전을 연다. 공모 주제는 한수원의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 및 신뢰 회복 방안 의 1개다. 접수는 홈페이지(www.khnpcontest.co.kr)를 통해 다음달 9일까지 가능하다.

현대모비스도 제5회 대학생 광고 공모전 을 주최한다. 응모 대상은 2년제 이상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휴학생 포함)이다. 대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팀은 이노션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www.mobis-adcontest.c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이국명기자

말띠생 'YBM기초영어 무료수강' 기회

말띠생이라면 기초 영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다.

YBM시사닷컴의 초급자 전용 사이트 'YBM기초영어'가 갑오년 말띠 해를 맞아 26일까지 말띠생을 대상으로 'YBM기초영어 무료 수강 체험단'을 모집한다.

초보 코스와 왕초보 코스 2가지 부문으로 최종 선정된 체험단은 6개월 동안 발음·동사·어휘·회화 등 약 12만원 상당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체험단 신청은 YBM기초영어 홈페이지(www.ybmbasicenglish.com)에서. 1930년부터 2002년 사이에 태어난 말띠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정용희 기자의 두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⑥

청중을 반하게 만드는 화법 '스토리텔링'

이야기는 힘이 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라디오 사연 들려주듯 말하면 청중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 W스피치 도움을 받아 스토리텔링을 연습해봤다.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은 자신의 경험담 또는 깨달음을 얻은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 겸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자 란 주제를 전할 때 "사람은 외모가 아닌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은 그 사람의 일부일 뿐입니다"는 식이 강의처럼 말하면 듣는 이는 금방 지루해한다. 대신 자신의 일화를 들어 "소개팅에서 피부가 하얗고 연약하게 생긴 분을 만났는데 엄청 동빈과 사이클이 취미라 놀랐다"는 식으로 전달하면 사람들은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동일한 주제라도 이야기를 양념처럼 사용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스피치 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다룬 실험 동영상도 시청했다.

한 노숙자가 길거리에 앉아 '저는 맹인입니다. 한 푼만 도와주세요'란 팻말을 옆에 두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바쁜 시민들은 노숙자를 슬쩍 보고 지나칠 뿐이다. 이때 한 여성이 나타나 팻말을 뒤집어 어떤 문구를 쓰기 시작했다. 새로 작성한 팻말을 놓자 노숙자의 동전 그릇은 경쾌한 동전 소리로 가득해졌다. 일부 사람은 지폐를 손에 건네기도 했다. 팻말 문구를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리의 노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새로 바뀐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멋진 세상을 볼 수 없는 자신과 타인을 대비시켜 공감을 이끌어낸 것이다.

사람들을 설득할 때, 청중의 관심을 얻어야 할 때 스토리텔링은 효과적인 화술이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스토리텔링은 일반 기업의 상업 광고에서도 많이 적용된다. 직접적으로 "우리 물건을 사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이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일상을 영상에 담는 식이다. 소비자에게 '저 물건을 사면 나도 광고 속 주인공처럼 될 수 있겠지'란 감정이입으로 지갑을 열게 유도한다. 스토리텔링은 사회생활의 강력한 언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호감을 주는 말하기에 대해 알아본다.

/sms@

트렌디가 올해 국민 걸그룹을 향해 도약하겠다며 힘차게 뛰어올랐다. 왼쪽부터 나율 엘리 루루 단비 타미

제2의 크레용팝 노리는 트렌디

만화 속 귀여운 여성 캐릭터를 모아놓은 듯한 외모의 신예 걸그룹 트렌디(TREN-D)가 제2의 크레용팝 열풍을 노린다. 팀 이름의 알파벳 한 자씩을 따서 이름 지은 타미(T)·루루(R)·엘리(E)·나율(N)·단비(D) 다섯 멤버는 가요계 유행을 이끄는 선두 주자가 되겠다며 오색 빛깔을 반짝인다.

 # 개성 솔직 친근 3색 무기

"트렌디가 아니라 '트렌디'예요. 국어표기법으로는 '렌'이라고 쓰는 게 맞지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우리 얘기가 너무 묻혀서 '렌'이라고 일부러 틀린 표기를 쓰기로 했어요."

숨김 없는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낸다. 이들의 가장 큰 매력은 솔직 담백함이다. 데뷔곡 '캔디 보이'로 활동하면서 각자 고유의 캐릭터를 정한 이들은 "멤버들이 힘들어도 들어주세요. 자세히 보면 딱 어울리는 면이 보일 거예요"라는 귀여운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타미는 빨강머리 앤, 루루는 말괄량이 삐삐를 닮은 세일러문 머큐리, 나율은 들장미 소녀 캔디, 단비는 엘프 요정을 연상시키는 맞춤형 스타일링으로 단번에 눈길을 끈다.

타미는 빼어난 보컬 실력과 판소리까지 소화하면서 래퍼를 맡고 있고, 루루는 광주 얼짱 출신으로 막내답지 않은 당찬 성격 때문에 팀의 리더를 맡고 있다. 엘리는 3년간 신보라·B1A4·김소정 등의 음반 가이드 녹음을 한 실력파 보컬리스트다. 팀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다는 나율, 조용한 성격의 서브 보컬 단비도 신비한 느낌을 준다.

세련되고 섹시한 매력만을 내세우는 여성 그룹들의 이미지 전쟁에서 트렌디는 개성과 솔직·친근감으로 틈새를 공략한다.

"키 작고 얼룩덜룩한 애들이라고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오히려 우리 같은 외모의 걸그룹이 드물더라고요. 우린 멤버를 뽑을 때부터 누구 하나 키가 커도, 작아도 안 되고 비슷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죠. 대신 캐릭터는 절대 겹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요."

 # 팬카페 생기고 응원송도

'캔디보이'는 유로 복고풍 댄스 디스코 음악으로 구피의 박성호

만화캐릭터 콘셉트 5인조 옆집 여동생 이미지 앞세워 복고풍 '캔디보이' 인기예감

원투의 오창훈 등 왕년의 인기 댄스 가수들이 프로듀서로 참여한 곡이다. 1990년대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고고장을 모티브로 한 복고풍의 음악으로 사랑하는 남자에게 고백을 하려는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듯한 미끄러지는 안무인 '롤러춤'과 막대사탕을 들고 먹는 듯 흔드는 '캔디춤'은 묘한 중독성을 띤다. 마치 폭발적인 화제를 모은 '직렬5기통춤'은 앞세워 스타덤에 오른 크레용팝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은 귀엽고 깜찍한 이미지를 바탕으로 친근한 옆집 여동생처럼 다가가는 게 목표예요. 하지만 다음엔 몰라보게 변해있을 거예요. 섹시한 카리스마도 곧 볼 수 있을 거고요. 변화무쌍한 매력의 국민 걸그룹이 목표예요."

약 3개월간의 데뷔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은 '위문열차'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은 일과 조영남의 디너쇼 오프닝 무대에 섰던 기억을 꼽으면서 "무엇보다 늘어가는 팬을 보는 게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처음 음악 방송 무대에 섰을 때 저희 팬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팬카페가 생기고 팬들이 응원송까지 만들어줬어요. 어차피 한번에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히 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 믿어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디자인/박은지

트렌디 프로필

★타미(TAMI·21)
키·몸무게 152cm·42kg
학력 금옥여고 졸업
특기 무술·비트박스
취미 판소리·춘향

★루루(RURU·21)
키·몸무게 152cm·40kg
학력 조선대 디자인학부 휴학 중
특기 연기·육상
취미 요리·메이크업·그림 그리기

★엘리(ELLY·23)
키·몸무게 152cm·42kg
학력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 졸업
특기 수영·성대모사
취미 골프·네일아트

★나율(NAYUL·21)
키·몸무게 164cm·42kg
학력 국제대 아동복지학과 졸업
특기 우쿨렐레·연기·노래 듣기
취미 쇼핑·거울 보기

★단비(DANB·21)
키·몸무게 152cm·43kg
학력 국제예술대 실용음악과 재학 중
특기 피아노·서예 쓰기
취미 장소 느끼한 음식 먹기

AOA "섹시배틀 한판 붙자"

AOA(사진)가 제목부터 야릇한 신곡을 들고 한겨울 걸그룹 섹시 배틀에 뛰어들었다.

이들은 16일 섹시한 분위기의 댄스곡 '짧은 치마'를 발표하고 컴백한다. 7일 공식 페이스북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다섯 번째 싱글인 이 곡의 재킷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AOA 멤버들은 몸매를 드러낸 터틀넥만 입은 채 아찔한 하의 실종 룩을 선보였다. 이들은 파격적인 하의 실종 패션으로 무결점 몸매와 섹시한 매력을 자랑했다. 지난 2012년 '엔젤스 스토리'로 데뷔한 AOA는 지난해까지 '겟 아웃', '모야', '흔들려' 를 잇따라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해왔다. /장병호기자 solanin@

슈주 멤버 스케줄 올스톱

이특 조부모·부친 비보에 조문… 연예인·네티즌들도 애도

슈퍼주니어 이특(사진)의 부친과 조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7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5일 오후 11시며 현장에는 부친인 박모(57)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박씨는 16년째 홀로 노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평소 부모를 극진히 모셨으며 몇 년 전부터 부모 모두 치매를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증이었던 모친은 지난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무역업에 종사했던 박씨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겪었고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부모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입원 하루 전날 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팝 대표 그룹 슈퍼주니어 리더 이특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발새 동료와 팬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밤 소식이 알려지자 슈퍼주니어의 멤버들은 물론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비스트의 윤두준 등 절친한 가수들은 빈소가 마련된 구로구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다.

슈퍼주니어의 신동은 이날 밤 라디오 생방송 일정을 취소했고, 또 다른 멤버 려욱은 라디오 시작 직전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소식에 경황이 없다. 여러분께 제가 힘을 드려야 하는데 저쪽에서 죄송하다"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빈소를 다녀온 윤두준은 "항상 웃어주시던 형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니까 가슴이 더 아프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트위터에 위로의 말을 더했다. 2PM의 찬성, FT아일랜드의 이홍기, 레인보우의 노을, 지숙 등은 트위터에 애도의 뜻을 함께했다. /유순호기자 spring@metroseoul.co.kr

'아시아 대세남' 이광수

말레이시아서 2000명 팬미팅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인기를 모으는 이광수가 '아시아 대세남'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광수는 4일 말레이시아에서 연 팬미팅에서 2000여 아시아 팬들과 만나 열광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팬미팅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며 깜짝 등장한 그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신승훈의 '아이 빌리브' 등 달콤한 세레나데를 선사하며 현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 간단한 근황 토크를 시작으로 특유의 유쾌한 입담을 아낌없이 발휘했다. 팬미팅에 참석한 팬 일부를 무대 위로 초청해 티셔츠에 직접 사인을 하거나 무릎을 꿇은 채 장미꽃을 전달하며 손등 키스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행사 말미에는 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거나 손깍지를 끼는 등 세심한 팬서비스를 선보였다.

소속사 관계자는 "2000여 팬들과 이광수가 한마음이 돼 두 시간 가량 화기애애한 자리를 만들었다. 자신을 찾아준 팬들에게 보답하고자 이광수가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한 자리이기에 행사가 더욱 뜻깊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진원기자 jsw427@

김무열 씨제스엔터와 계약

JYJ 김준수의 쌍둥이 형인 김무열이 동생의 소속사인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7일 "신인 배우 김무영이 새 식구가 됐다"고 밝히며 "본명인 김준호에서 김무영으로 개명하고 연기자로서 제2막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국내 데뷔 전부터 중국과 일본에서 팬클럽을 보유하며 가수 및 연기자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 한국에서는 신인배우로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기대를 당부했다.

김무영은 2010년 3월 중국에서 싱글을 발매했다. 이어 2010년 8월 일본에서 첫 싱글을 발매했으며 두 번째 싱글 '팔라브'로 오리콘 싱글차트 3위에 올랐다.

국내에서는 풍부한 감수성으로 JYJ의 '미션'과 김준수의 '타란탈레그라' 앨범 '가지마' 등에 작사가로 참여했다. 연기자로서는 2012년 TV조선 '지운수대통'으로 데뷔해 현재 MBC '기황후'에 황제(지창욱)의 호위무사 나무 역으로 출연 중이다.

'응답하라 1994'로 순천을 알린 배우 손호준(오른쪽)이 7일 전남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3000명 팬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아이돌 콘서트 현장 같은 손호준 프리허그 행사

tvN '응답하라 1994'의 해태로 주목받은 배우 손호준이 전남 순천에서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손호준은 7일 순천 조례동 조례호수공원에서 팬들을 상대로 프리허그 이벤트를 진행했다. 당초 선착순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손호준의 '해태 순천 프리허그' 이벤트에는 무려 3000여 명의 팬이 모여들어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손호준은 최근 종영한 '응답하라 1994'에서 걸쭉한 전라도 순천 사투리로 웃음과 진한 감동을 선사해 큰 인기를 얻었다. 순천시는 손호준이 순천 시민 역을 잘 표현해준 것과 순천시에 직접 방문해 프리허그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는 것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 명예 홍보대사 위촉패와 공로패를 전달했다.

한편 손호준은 이날 프리허그 행사 종료 후 순천에 들른 걸그룹 티아라와 함께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또 자신의 고향인 광주에 들러 티아라 광주 팬사인회에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김보영기자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대표작!
2시 최고!
특가 1만원
(평일 2시 공연 관람시/1월 공연)
가족뮤지컬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빠와 함께 떠나는 신나는 여행
2013년 7월 3일 ~ 2014년 3월 2일
코엑스아트홀
화·목 2시 / 수·금 11시, 2시 / 토·일·공휴일 11시, 1시 / 월 공연없음

"막강 제작진 있음에" 황정민 흥행 부푼 꿈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의 한 장면과 황정민.

'남자가 사랑할 때', '신세계' 핵심 스태프 참가…'국제시장' 김윤진·오달수와 호흡

황정민이 송강호·설경구·하정우를 잇는 다작다흥 배우를 노린다.

22일 개봉하는 영화 '남자가 사랑할 때'로 2014년을 분주히 시작하는 황정민은 최근 촬영을 마친 '국제시장'(하반기 개봉)으로 멀티 흥행을 노린다.

황정민은 지난해에도 2월과 4월 개봉한 '신세계'와 '전설의 주먹'으로 각각 468만 명과 174만 명을 동원했다.

그러나 '설국열차'(934만 명)·'관상'(913만 명)에 이어 '변호인'(802만 명)까지 세 편으로 20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송강호, '베를린'(716만 명)·'더 테러 라이브'(557만 명)로 1273만 명을 모은 하정우, '감시자들'(550만 명)·'스파이'(343만 명)·'소원'(271만 명)으로 1164만 명을 동원한 설경구 등 지난해 유독 멀티 흥행작을 많이 만들어낸 배우들과 비교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

황정민이 올해 주연을 맡은 두 편의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였던 '신세계'와 달리 관람 등급에서 제약이 덜하고, 막강한 티켓 파워를 지닌 제작진이 뭉쳤다는 점에서 익대 쳐고 흥행도 노려볼 만하다.

'남자가 …'에서 황정민은 고도소를 들락거리는 사채업자로 거칠게 살아오다 일생에 한 번뿐인 사랑에 빠지는 남자 태일을 연기한다. 까지 '신세계'의 냉혹한 건달 정청과 사뭇 달리 한없이 순수하고 서툰 '너는 내 운명'의 김석중을 쉬며 놓은 듯한 인물이다. 황정민은 이 두 편의 영화로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남자가 …'는 '신세계' 조감독 출신인 한동욱 감독의 데뷔작이자 '신세계'의 프로듀서를 비롯해 촬영·조명·미술·분장 등 핵심 스태프가 고스란히 참여한 작품으로, 황정민과 또 한 번 완벽한 호흡을 맞췄다.

하반기에는 140억원이 투입된 블록버스터의 주인공으로 나선다. 한국·체코·태국을 오가며 4개월간 촬영한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은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아버지를 대신해 부산 국제시장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전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온 남자 덕수 역을 맡았다. '해운대'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윤제균 감독이 4년 만에 연출한 작품이다.

'국제시장'에는 월드스타 김윤진, '7번방의 선물'·'도둑들'·'변호인' 등 메가 히트작의 단골 배우 오달수가 출연한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엑하트 '프랑켄슈타인'서 영웅 변신

전 세계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다크 나이트'의 투 페이스로 유명한 에런 엑하트(사진)가 다음 달 국내 개봉될 액션 블록버스터 '프랑켄슈타인: 불멸의 영웅'(이하 '프랑켄슈타인')에서 히어로로 변신한다.

이 영화는 인간이 창조해낸 불멸의 존재 프랑켄슈타인이 악에 맞서 인류를 구할 거대한 전쟁을 펼치는 과정을 그린다. '다크 나이트'에서 인상적인 악역 연기를 선보였던 엑하트가 이번엔 악에 맞서 인류를 구할 유일무이한 영웅 프랑켄슈타인으로 그려져 눈길을 끈다.

엑하트는 이번 영화에서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등 초능력이나 별도의 특수장치가 들어간 슈트를 활용하는 전형적인 히어로의 틀을 깬다. 맨몸으로 초인적인 힘과 전투 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과격한 액션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소화하기 위해 필리핀 전통 무술인 칼리를 연마하며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액션 트레이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엑하트는 '다크 나이트' 골든글로브 아카데미 수상작인 '에린 브로코비치'와 '블랙 달리아', '럼 다이어리', '사랑의 레시피', '백악관 최후의 날'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며 할리우드에서 입지를 구축했다.

/[illegible]기자

"첫 무대 재밌어 계속 뛰어다녔다"

'사운드 오브 뮤직' 소향 뮤지컬 데뷔 소감…박기영 "엄마처럼 비춰질까 걱정"

7일 열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프레스콜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게오르그 폰 트랍 대령 역의 박완·김태만·이필모와 마리아 역의 소향·박기영·최윤정. /손진영기자

가수 소향과 박기영이 '사운드 오브 뮤직'(사진)의 주인공 마리아 역으로 나란히 뮤지컬에 데뷔한 소감을 털어놨다.

소향은 7일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연습 내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잘할 수 있을까 스스로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무대에 처음 선 순간 관객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출산 후 복귀작으로 이번 작품을 선택한 박가영은 "늦게 캐스팅이 돼서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지만 마리아 역에 함께 캐스팅된 소향과 최윤정의 도움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함께 출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네인 마리아가 엄마처럼 비춰질까봐 걱정이었다"고 연습 과정을 이야기했다.

원작 영화로 유명한 이 작품은 오스트리아 자연을 배경으로 폰 트랍가의 일곱 아이들을 돌보게 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견습수녀 마리아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지난달 6~15일 대구, 19~25일 부산에서 공연을 마친 데 이어 이달 4일부터 서울 유니버설아트센터 무대에 오르고 있다.

한편 원장수녀 역을 맡은 양희경은 "'넌센스' 신혜이그네스 에 이어 이번까지 원장 수녀 역만 여섯 번째다. 수녀복이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라고 너스레를 떤 뒤 "'사운드 오브 뮤직'은 진부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세월이 오래된 작품인데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매력이 있다"고 관람을 당부했다. /박선영기자 tak0427@

배우 숀 펜, 테론과 열애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숀 펜(사진 왼쪽)이 미니 스칼렛 요한슨에 이어 15세 연하인 샤를리즈 테론(오른쪽)과도 열애설에 휩싸이며 '50대 능력남'의 면모를 과시했다.

미국 연예 주간지 피플은 6일(현지시간) "펜과 테론이 새해 첫날 하와이에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뒤 지난 토요일 데이트를 즐겼다"며 같이 있는 사진을 보도했다.

사진에는 테론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고 펜이 차 안에서 테론을 기다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목격자는 "두 사람이 웃고 있었다. 매우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다"고 두 사람의 분위기를 전했다.

두 사람은 이후 테론의 집으로 향했으며, 다음달 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를 함께 관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측 대변인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두 사람이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다 지난해 10월 할로윈 파티를 계기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한편 펜은 마돈나·로빈 라이트와 이혼 후 스무 살 이상 연하인 페트라 넴코바·스칼릿 조핸슨과 연이어 염문을 뿌렸다. 조핸슨과는 2011년 교제 5개월 만에 헤어졌다.

/[illegible]기자

국산 애니 '넛잡' 싸이 말춤 특별영상 공개

29일 개봉될 국산 블록버스터 3D 애니메이션 '넛잡: 땅콩 도둑들'이 극중 삽입된 싸이의 말춤 특별영상을 공개해 화제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싸이의 3D 캐릭터가 극중 캐릭터들과 함께 히트곡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춰 웃음을 자아냈다. 싸이도 실제로 등장해 우렁찬 목소리로 "더 넛잡"과 "넛잡 파이팅"이라는 응원 멘트를 전하며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했다.

이 애니메이션은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50억원 투입,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미국 전역에서 3000여 개 관 대규모 개봉 확정, 전 세계 120여 개국 선판매, 싸이의 참여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다. 사고뭉치 다람쥐 설리와 친구들의 기상천외한 땅콩털이 대작전을 담았다.

이 밖에 영상에서는 설리가 도로 위에서 쫓는 수단 짐꿍왕쟁대가 급류에 휩쓸리며 겪는 긴박한 상황 등 애니메이션의 주요 장면들도 공개됐다.

/[illegible]기자

뚱뚱한 사람이 더 건강?

"체중증가는 스트레스 받은 인체의 생존전략" — '살빼기' 강박증에 반격

디이어트라는 단어로 도서를 검색하면 분명 수많은 다이어트 관련 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이어트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동시에 기존의 다이어트 관련 책들이 디이어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왜 살이 찌는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기보다는 살을 빼는 빠른 방법만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다이어트 관련 책을 쓴 저자들은 자신이 고안한 다이어트 방식이 언제나 새롭고 확실한 결과를 준다고 확신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디이어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커다란 몸집의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 뚱뚱함이 미덕이라는 말이다.

다이어트의 배신
아힘 페터스/에코리브르

저자는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와 사례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체중 증가가 뇌에 의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이뤄진 결과이며 체중 감량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된다는 주장 역시 속설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즉 다이어트도 비니의 속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울러 저자는 체중 증가가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 몸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이고 질병의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뚱뚱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도 스트레스에 잘 견디며 모든 질병에도 잘 저항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비록 그 진실이 불편할지라도, 이 세상에 빠르고 쉬울뿐더러 위험하지 않고 건강한 체중 감량 비법이란 없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 약속하는 사람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속설을 부정해야 할 때다.

/김민주기자 minju@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 세상을 품은 인형들

①가나의 토강 드럼 인형은 북으로 소통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자신들의 독특한 문화를 보여주고, ②필리핀의 박물 타갈로그를 입고 있는 인형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를 가리킨다. ③폴란드의 라이코닉 인형은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친 영광의 순간을 재현했다. 사람들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은 것을 인형으로 만들어왔다. 인형은 재미있는 풍습이나 신나는 축제,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생활 속 풍경 등 다양한 삶의 풍경이나 벅찬 순간, 아픈 역사와 함께 한다. –갖고 싶은 세계의 인형/윤관찬·김진경/바다출판사 刊–

/박지원기자 pjw@

'추리의 여왕' 애거서 명작 다시읽기

화제의 책

애거서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
애거서 크리스티/황금가지

'오리엔트 특급살인' 등 대표작 10권 시리즈로

애거서 크리스티의 작품들 중 최고의 작품들만을 엄선한 '애거서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 시리즈가 황금가지에서 출간됐다.

기네스 기록에 의하면 그녀는 100권이 넘는 장편 소설과 단편집과 희곡을 썼다. 이 소설들은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적으로 40억 부가 넘게 팔려나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작가다. 이번에 선보인 애거서 크리스티 에디터스 초이스는 기 디엔지에서 선정한 그녀의 베스트 10 목록과 전 세계적인 판매고, 애거서 크리스티 본인이 직접 밝은 가장 좋아하는 작품 목록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총 77권인 전집 가운데 10권을 통해 독자들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새로이 현대적인 디자인을 입힌 것이 특징이다.

이번 에디터스 초이스 시리즈엔 전 세계에서 1억 부가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출간 이래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미스터리 소설의 대표작인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를 비롯해 작가가 창조한 캐릭터 중 가장 인기가 높은 명탐정 에르퀼 푸아로의 대표작 '오리엔트 특급 살인' 등이 포함됐다.

/정원일기자 jjwy@

새로 나온 책

요리

날것의 인생 매혹의 요리사
추인 오거노/반비

텍사스 교도소에서 200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준 요리사부터 알프스의 두메산골에 있는 700년 된 게스트하우스에서 요리하는 할머니까지 흥미로운 사연을 가진 요리사들의 인생 이야기다. 반탁 사위 현장을 찾아다니며 시위자들이 먹을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도 있다.

건강

박티 건강법
서오출츠/동림

2010년 중국에서 출간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건강 비법서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7가지 스트레칭과 함께 하루 10분씩 쳐주고 두드려주는 박타 방법을 담고 있다. 1분을 배우면 100년이 건강해진다.

역사

학자의 고향
KBS 학자의 고향 제작팀/시공출판사

2011년 KBS 1TV에서 총 45회에 걸쳐 26명의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소개한 '학자의 고향' 중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15명의 이야기를 엮었다. 이들의 삶과 행보는 비뚤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리더십의 빈곤을 겪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의 조건을 제시한다.

경제/경영

장사 잘되는 카페
전기훈/이코스

지난 10년간 저자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카페 장사의 관심이 담겨있다. '카페 이렇게 하면 망한다'라는 칼럼을 연재하기도 한 저자의 카페 장사 노하우는 카페 오픈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매출 부진에 빠진 카페 사장에게도, 지쳐가는 카페 경영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B2B영업 한비자에서 답을 찾다
한석모/미래지식

20년 동안 B2B 영업 현장에서 끊임없이 영업의 정도와 전략에 대해 고민하던 저자는 '한비자'라는 책을 읽고 크게 깨달아 B2B 영업을 잘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영업에 유리한 환경, 영업 전략, 영업적 스킬 등 한비자의 지혜와 저자의 노하우를 통해 B2B 영업의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소설

후견인
윤비돈/대성 KOREA.COM

비극의 집이 된 모든 것을 잃은 에이든 가문의 유일한 상속녀 스칼렛. 그리고 스칼렛의 후견인이 된 세더릭드. 하지만 세더릭드의 가족들이 미니든 어둔의 죽음을 맞이하며 에이든 가문을 둘러싼 복수와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로맨틱 블랑제리
쥘 르가르디에/달콤한 책

주로 스릴러 작품만 써오던 작가가 달달한 사랑을 이야기했다. 사랑에 빠진 스물아홉 살 여성의 심리를 생생하게 묘사해 재미있게 읽힌다.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고 평범한 사람들이 지닌 행복까지 담아냈다.

인문

로또 당첨번호 내 꿈속에 있다
세하인/다차원북스

꿈속에 나타나는 상징물을 로또 복권 당첨번호와 연관시켜 풀이한 책이다. 예로부터 가치가 있는 꿈들에 대해서는 그 연관성을 기록했으며 꿈과 부합되는 상징적 사물과 관련된 숫자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 주간 e북 인기 순위
※ 집계 기간: 2013년 12월 30일~2014년 1월 5일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분류
1	미덥	기욤 뮈소	밝은세상	소설
2	정글만리 1	조정래	해냄출판사	소설
3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더클래식	소설
4	작은 31	곤동조	스카이미디어	장르소설
5	이반발가 세트	윌리엄 셰익스피어	더클래식	소설
6	위대한 개츠비 세트	스콧 피츠제럴드	더클래식	소설
7	인생수업	법륜	휴(休)	종교
8	트렌드 코리아 2014	김난도, 전미영, 이향은, 이준영, 김서영	미래의창	경제경영
9	그리스인 조르바 세트	니코스 카잔차키스	더클래식	소설
10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인문사회

/인터파크 제공

‘수성’ 이상화 ‘돌풍’ 윤성빈…金 부탁해

이, 소치 마지막 리허설 우승 – 2연패 달성 기대
윤, 스켈레톤 대륙간컵 사상 첫 1위 – 활약 주목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한 달여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에 이어 한국 스켈레톤의 겁 없는 신예 윤성빈(20·한국체대·사진)이 겨울 스포츠의 보배로 떠올랐다.

윤성빈은 7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인터컨티넨탈컵 6차 대회에서 1·2차 레이스 합계 1분45초73의 기록으로 안톤 바투에프(러시아·1분46초27)를 0.54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인터컨티넨탈컵 출전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다.

지난해 여름 스켈레톤에 입문해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3개월 만에 국가대표에 발탁된 윤성빈은 2년차의 짧은 경력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한국 스켈레톤 역사상 최초의 인터컨티넨탈컵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다. 인터컨티넨탈컵은 월드컵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한국 선수들이 자주 출전하는 아메리카컵보다 수준이 높다.

윤성빈은 지난해 11월 아메리카컵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고 12월 인터컨티넨탈컵에서도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켈레톤 입문 2년 만에 인터컨티넨탈컵 금메달까지 목에 건 윤성빈이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깜짝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존 몽고메리(캐나다)도 윤성빈보다 0.84초 뒤진 5위에 그쳤다.

한편 이상화는 7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4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 일반부 500m에서 38초11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이 경기는 이상화가 지난해 11~12월 월드컵 1~4차 대회를 마친 뒤 출전한 첫 대회이자 소치 올림픽에 앞서 치른 마지막 실전 레이스다. 그는 월드컵 1~2차 대회에서 세 차례나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이 종목에서 세계 최강의 입지를 굳혔다.

/정해훈기자 ssw@metroseoul.co.kr

이상화가 7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44회 회장배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 여자 일반부 500m 경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그는 38초11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뉴시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7일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17라운드 셀타비고와의 경기에서 후반 43분 자신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에우제비우에 이 골을 바칩니다”

호날두 멀티골 시즌 20호 – 스페인리그 득점선두

포르투갈의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9·레알 마드리드)가 최근 사망한 에우제비우 다 실바 페레이라에게 골로 애도를 표했다.

호날두는 7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셀타비고와의 2013-2014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17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터뜨렸다.

카림 벤제마의 골로 1-0으로 앞선 후반 37분과 후반 추가시간에 내리 2골을 넣어 레알 마드리드의 3-0 완승을 이끌었다.

이날 멀티골을 기록한 호날두는 "에우제비우는 위한 골이다"며 "그는 항상 나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신화적인 인물이다.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5일 사망한 포르투갈의 축구 영웅이자 대선배인 에우제비우에게 골을 바친 것이다.

이날 경기를 앞두고 동료들과 함께 침묵 속에서 에우제비우를 추모한 호날두는 "(에우제비우를 위해) 경의를 표하는 스페인 전역의 분위기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한편 호날두는 이날 2골을 더하면서 시즌 20호 6골로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 올랐다. /정해훈기자

모비스, KGC인삼공사 꺾고 3연승 달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안양 KGC인삼공사를 물리치며 3연승을 달렸다.

모비스는 7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KGC인삼공사에 69-66으로 승리했다.

모비스는 이날 승리로 23승9패를 기록하며 1위 서울 SK(22승8패)와의 승차를 0으로 만들었지만 승률에서 뒤지며 2위를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양팀은 경기 내내 팽팽하게 맞섰지만 양동근이 해결사로 나서며 모비스가 승기를 잡았다.

3쿼터까지 4점에 그친 양동근은 4쿼터 막판 KGC인삼공사의 추격에 찬물을 끼얹는 3점슛과 자유투 3개를 성공시키며 모비스의 승리를 이끌었다. /정해훈기자 hsoul38

프로농구 전적 7일

KGC	21	12	16	17	66
모비스	22	13	17	17	69

프로배구 전적 7일

대한항공	3	1	러시앤캐시

울산 모비스의 양동근(오른쪽)이 KGC인삼공사의 수비를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봉중근 4억5000만원 계약 현역 마무리투수 최고 대우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봉중근이 국내 현역 마무리 투수 가운데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

LG는 봉중근이 지난해 1억5000만원보다 200% 상승한 4억5000만원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구원왕을 차지한 손승락(넥센 히어로즈)이 받는 4억3000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현역 마무리 투수 중 최고 대우다. 봉중근은 지난해 55경기에 나서 8승1패 38세이브를 올리고 평균자책점은 1.33을 기록했다. /정해훈기자

한신 오승환 가장 먼저 스프링캠프 입소

한신 타이거즈 수호신 오승환(32·사진)이 가장 먼저 팀 스프링 캠프지인 오키나와로 이동해 몸을 만든다. 새로운 팀과 새로운 무대에서의 적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는 7일 오승환이 다른 선수들보다 빠른 오는 24일 오키나와에 입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신은 젊은 선수들 위주로 구성된 선발대를 26일 캠프지 오키나와로 들여보낼 계획이다.

한신 구단 관계자는 오승환이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캠프지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구장의 시설과 환경 등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괌에서 자율훈련 중인 오승환은 오키나와 이동 다음날인 25일부터 한신이 사용할 기노자구장을 독점,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신은 전지훈련을 마친 뒤 다음 달 22일부터 시범경기에 들어간다. 이후 3월 28일 라이벌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2014년도 정규시즌을 맞이한다. /정해훈기자